

아주대학교

제9기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

## 인문학, 인간을 품다

아주대학교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은  
나를 돌아보는 공부이고, 나와 남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분주한 일상사에서 벗어나 그동안 접어두었던  
인간과 사회에 대한 성찰을  
함께 향유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인문학의 놀라운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아주대학교  
AJOU UNIVERSITY

인문대학  
College of Humanities

평생교육원  
Center for Lifelong Lear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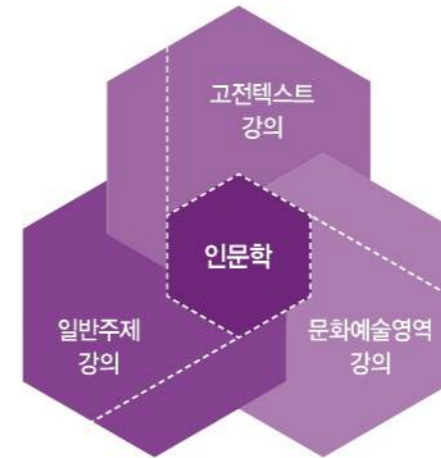


■ 아주대학교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은  
 최근 화두가 되는 공통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맞는 강좌로 운영됩니다.  
 2개 학기 매학기별 13주간 진행되는 다채로운 강의는  
 사회 각 분야의 리더들이 시대를 선도하는  
 인문 경영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사회적 리더로서 또한 주체적인 개인으로서  
 인류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고찰하는 과정은 자신을 성찰하고  
 가다듬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

아주대학교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은 자유로운 사유공간입니다. 이 사유는 나와 너 · 사회 · 자연을 포괄합니다.  
 사유는 우리로 하여금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합니다.  
 인문학 강의를 통해 자유로운 영혼, 창조적인 정신세계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 3개 계열의 다양한 강의 구성



전체 강의는 3개 계열,  
 즉 **인문고전을 읽고 탐구하는**  
 인문학 고전텍스트 강의,  
**흥미롭고 시의성 있는 특정 테마를 다루는**  
 인문학 일반주제 강의,  
**문화와 예술분야의 감성과 전문지식을 익히는**  
 문화예술영역 강의로  
 적절하게 배분되어 구성된다.  
 이를 통해 주체적 학습과  
 테마별 심화교육, 문화적 감성교육의  
 기회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 공통 테마가 있는 강의

각 기수별로 당대의 화두를 주제로 선정하여 강의를 운영한다.  
 2개 학기 매 학기별 13주 개별 주제들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유지  
 함으로써, 강의의 일관성과 통합성을 유지하고 집중적인 교육효과  
 를 도모한다.

### 나를 찾는 고전텍스트 공부

동서양의 대표적 고전을 배우고 익히는 기회를 갖는다. 고전을  
 직접 읽고 전문가의 지도 하에 고전의 현재적 의미를 고찰하고 논의  
 한다. 인류의 보편적 지혜가 담긴 고전을 학습함으로써 주체적이  
 고 반성적인 인문학 공부를 실천한다.

### 인문 경영능력 함양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은 인간과 문화에 대한 원천 지식을 함양  
 하고 개인과 인간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은 인간적 감성과 창의적 상상력을 고취  
 하며 사회적 리더로서의 품격과 역량을 고양시킬 수 있다. 결과적  
 으로 개인적 성찰과 자기계발의 기회까지 주어지는 과정을 통해  
 모든 수강생들은 최고관리자가 갖춰야 할 인문경영능력을 갖추게  
 된다.





인문학아카데미 원장 박만규

## “인문학의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크고 작은 조직을 이끄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몰두하고 고민하는 분야는 달라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민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는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까요?

여러분은 어쩌면 데이터에서 답을 찾으려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정보에서, 혹은 지식에서 답을 구하려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와 정보나 지식은 넘쳐납니다. 그것들이 모자라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그러한 데이터와 정보와 지식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고 선택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해결책을 찾는 능력을 우리는 지혜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에게는 데이터와 정보와 지식보다는 이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답은 인문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인문학이 지혜를 주는 것일까요?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사회 전반에 걸쳐 인문학과의 융복합이 강조되고 있는데, 왜 인문학일까요? 인문학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삶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학문이고 모든 문제는 결국 인간과 삶의 문제로 환원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문학의 방법론은 비판정신에 기초하고 있는데, 기존의 사고에 대한 비판을 통할 때만 비로소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비판의 창조적 기능으로 인해 요즘 인문학 열풍이 부는 것입니다.

또한 조직 경영의 측면에서도 인문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쥐어짜기 경영을 하고 있고 따라서 삶의 질과 효율성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는 인문 경영을 도입하여 삶의 질 향상과 효율성 제고를 꾀해야 할 때입니다. 실제로 인문경영하는 기업들이 등장하여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은 인문학의 여러 분야에 정통한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함께 생각하고 토론하는 장입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최고의 만족을 보장해 드릴 것입니다. 총 26회의 강의들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인문학적 사고를 깨우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조직 경영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아주대학교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봄학기

강좌	날짜	구분	강의 주제	강사
입학식				
제1강	3/19(월)	개강 특강	당신은 당신의 감정이다! - 감정 언어 사용설명서	박만규 (아주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제2강	3/26(월)	일반	문화란 무엇인가	주철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제3강	4/2(월)	일반	세종시대와 인재 등용 - 함께하는 리더십	신병주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제4강	4/9(월)	일반	변화와 성장의 시작! 'Self-Awareness'의 이해와 활용	이성엽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제5강	4/16(월)	고전	「열하일기」, 천의 고원을 가로지르는 유쾌한 노마드	고미숙 (고전평론가)
제6강	4/23(월)	일반	조직문화가 경쟁력이다	조영호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제7강	4/30(월)	일반	한국인의 관계심리학 : 리더를 위한 감정관리 노하우	권수영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수)
제8강	5/14(월)	일반	우리 시대의 위험한 한국어 : 언어 변화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박재연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9강	5/21(월)	고전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볼테르의 「관용론」	김용현 (아주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제10강	5/28(월)	문화 예술	미술작품의 감정과 수집의 인문학	박영택 (경기대학교 예술학과 교수)
제11강	6/4(월)	일반	나폴레옹의 신화와 역사	박구병 (아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제12강	6/11(월)	일반	인간 욕망의 두 시스템. 접근과 회피 동기 그리고 소통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제13강	6/18(월)	종강 특강	한민족의 문화코드! 아리랑의 생명력!	김영운 (한양대학교 국악과 교수)
수료식				

가을학기

강좌	날짜	구분	강의 주제	강사
입학식				
제1강	9/10(월)	개강 특강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주철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제2강	9/17(월)	일반	당신은 말하는 만큼 존재한다 - 생각의 구조와 언어의 혁신	박만규 (아주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제3강	10/1(월)	일반	격변기에 반추하는 한반도의 국제관계	한명기 (명지대학교 사학과 교수)
제4강	10/15(월)	일반	하루 1% - 변화와 혁신의 심리학	이민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제5강	10/22(월)	일반	인공지능시대, 일의 미래	구본권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제6강	10/29(월)	고전	괴테 「젊은 베르터의 슬픔」	오순희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제7강	11/5(월)	일반	깊은 변화의 원동력! 내 인생의 '관찰자(Observer)'되기	이성엽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제8강	11/12(월)	문화 예술	오케스트라처럼 경영하라	서희태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제9강	11/19(월)	일반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과 우리시대의 행복론	정재식 (아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제10강	11/26(월)	고전	「훈민정음」	이상신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11강	12/3(월)	문화 예술	영화로 보는 창조혁신	이승재 (영화평론가)
제12강	12/10(월)	일반	역사를 통해 어떻게 변화와 혁신을 말 할 것인가 : 뻘한 한국역사를 다른 식으로 보기	김종식 (아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제13강	12/17(월)	종강 특강	호모루덴스의 귀환 - '공부하는 즐거움'에서 답을 찾다	최운실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수료식				





제9기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 강의개요 및 강사약력

# 봄학기

## 제1강 | 당신은 당신의 감정이다! - 감정 언어 사용설명서



**박만규**  
아주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문학박사
- 아주대학교 디지털유머미디어센터장, 불어권협력센터장
- 전국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협의회 회장, 전 파리7대학 및 몬트리올대학 초빙교수
- 수상·상훈: 프랑스정부 학술공로훈장(Ordre des Palmes Académiques) 기사(Chevalier)장 수훈
- 연구 분야: 언어과학, 언어교육학, 전산언어학

인간은 이성의 동물인가, 감정의 동물인가? 이 질문에 이제 더 이상 이론의 여지는 없다. 감정은 이성이 활동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감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감정(및 정서)은 기분, 느낌, 신념 및 사고와 어떻게 구분되고 또 어떻게 연결되는가? 감정은 생리적 증상, 신체 및 인지 행위, 태도, 의견, 평가 등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강의에서는 이 같은 질문들에 답변하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언어들을 살펴보고, 특히 긍정적 감정을 잘 전달하고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거나 긍정적으로 전환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왜냐하면 감정은 대개 언어에 의해 유발되고, 드러나고, 전달되기 때문이다.

## 제2강 | 문화란 무엇인가



**주철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 전 OBS 경인TV 대표이사 사장
- 전 JTBC 제작본부장, 편성본부장
- 전 이화여자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 연출 프로그램: MBC TV <퀴즈 아카데미>, <우정의 무대>, <일요일 일요일 밤에> 등
- 저서: '오블라디 오블라디', '더 좋은 날들은 지금부터다', '침춘', 'PD마인드로 성공인생을 연출하라', 등

대한민국헌법 1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백범 김구 선생이 쓴 '내가 바라는 우리나라에도 행복한 나라의 모습이 나온다.' "오직 헌법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다익으로' 변역합니다. '더 잘사는 것도 좋지만 '다 잘 사는 것은 더 좋다는 뜻입니다. '더 새롭게, 더 행복하게 살려면 백범처럼 문화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문화의 목표는 결국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변화를 찾고 평화를 구하는 게 문화의 여정입니다. 노예가 되고 가계가 된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문화의 힘입니다. 어떤 점에서 문화(culture)는 농사(agriculture)와 닮았습니다. 수확의 희망을 품은 농부들은 그 땅에 맞는 작물이 무엇인지를 가능해야 합니다. 그들은 재배자가 아니라 재배자입니다. 슬기로운 농부는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제 때 심고(모내기) 제 때 뽑습니다.(김매기) 문화 국가의 슬로건을 만약 짓는다면 '나가지, 나아가자'라고 정하겠습니까. 나가는 것은 '밖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것은 '밖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에선 '끼리끼리'의 내부자문화가 아니라 '서로서로의' 외부자문화로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과거에 사로잡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발상전환의 미래를 구하여야 합니다. 지역주의, 권위주의, 기득권의, 냉소주의의 낡은 옷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은 좋지만 근육이 움직이는 것만은 피해야 합니다.

## 제3강 | 세종시대와 인재 등용 - 함께하는 리더십



**신병주**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
- KBS TV 「역사저널 그날」, KBS 라디오 「글로벌 한국사 그날 세계는」 진행
- KBS의 「역사추리」, 「TV조선왕조실록」, 「역사스페셜」, 교육방송의 「역사극장」 등 자문
- 연구분야: 조선시대 사상사를 중심으로 한 왕실 기록, 조선후기 실학, 통치 철학 등
- 저서: 「조선과 만나는 법」, 「조선명전」, 「조선왕실 기록 문화의 꽃 의궤」, 「규장각에서 찾은 조선의 명품들」, 「조선후기를 움직인 사건들」, 「고조선실 속 역사여행」, 「이치 함 평전」 등

세종 시대의 리더십은 '함께하는' 정치의 표방이었다. 자신이 출중한 능력의 소유자였음에도 세종은 독단적으로 정국을 운영하지 않았다. 전국의 인재들을 불러 모으고 이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공법이라는 토지 세법을 정할 때 17만 명에 이르는 백성들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본 것이라든가, 집현전을 설치하여 최고의 인재들로 하여금 국가 정책을 만들게 한 것, 친민 출신의 과학자 장영실의 발탁은 세종의 포용적인 리더십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김종서, 최윤덕과 같이 국방 개척에 소임을 다한 인물들이나, 황희, 맹사성, 유관, 허조와 같은 청백리 정승들이 세종 시대에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것도 국토와 민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도덕적으로 기강이 바로잡힌 시대분위기를 대변해주고 있다.

## 제4강 | 변화와 성장의 시작! 'Self-Awareness'의 이해와 활용



**이성엽**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고려대학교 교육학 박사
- 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
- 한중협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사)한국인력개발학회 상임이사, (사)한국 인사관리학회 부회장, (사)한국상담학회 NLP 상담학회장, 경기도인재개발원 자문위원
- 저서: 「어웨이크너」, 「낯선 길에 서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 「성인 경험학습의 이해」, 「스무 살 여행, 내 인생의 타임포인트」, 「TIME POWER 잠들어 있는 시간을 깨워라」, 「일자리와 교육리더십」, 등

변화하는 시대일수록 인재육성의 핵심은 근본적인 원리를 살펴보는 것이다. 인재육성분야 최고의 테마는 리더십이고 리더십의 핵심은 신뢰이다. 성품과 역량이라는 신뢰성으로 구성된 신뢰는 리더의 '자기성찰'을 통해 시작되고 완성된다. 따라서 그래서 리더의 Self Awareness는 리더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리더십의 시작이다! 본 강좌에서는 Awareness의 개념 이해와 삶 속에서의 활용을 논의하고, 나아가 순수의식을 논해본다. 이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가치, 신념 그리고 자아 정체성을 돌아보고 새롭게 정립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제5강 | 고전읽기 1 「열하일기」, 천의 고원을 가로지르는 유쾌한 노마드



**고미숙**  
고전평론가

- 고려대학교 문학박사
- 인문학 공부 밴드 <강이당(坎以堂)> 연구원, 인문학 공부 공동체 <남산 김학원> 연구원
- 저서: 「열하일기 웃음과 역사의 유쾌한 시간들」, 「공부의 달인 호모 콰투스」, 「동역보감, 몸과 우주 그리고 삶의 비전을 찾아서」, 「바보야, 문제는 돈이 아니니깐」, 등
- 수상·상훈: 출판문화대상(청소년 분야), 「공부의 달인 호모 콰투스」

「열하일기」는 1780년 연암 박지원이 체험한 청나라 여행의 기록이지만 이 여행기는 단순히 유적지와 이국적 풍경을 답사하는 오늘날의 여행기(기행문)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조선의 선비 박지원은 우연히 얻은 청나라 여행길에서, 이제까지와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있다. 「열하일기」는 연암이 길 위에서 이른 '전한' 접속에 관한 기록이고, 침묵하고 있던 사물들에 새로운 목소리가 새겨지는 탄생의 현장이며, 연암 특유의 통찰력과 문장력이 세련된 담론으로 펼쳐지는 경이의 고원이다. 주체도 대상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 강렬한 흐름만이 존재하는 광야 혹은 평원 등지에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경쾌하게 때로는 장중하게 또 때로는 한없이 애수에 젖어 들게 만드는, 하여 우발적으로 마주치는 모든 길에 대해 강렬한 약센트를 부여했던 유쾌하면서도 역설적인 시공간적 편력기, 그 「열하일기」의 세계로 초대한다.

제6강 | 조직문화가 경쟁력이다



**조영호**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프랑스 엑스·마르세유(Aix-Marseille) III 대학교 경영학 박사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Editorial Review Board member, Journal of World Business, Published quarterly by Elsevier Inc., Amsterdam, The Netherlands, 전 한국인사조직학회 부회장
- 저서·역서: 「경영학 뉴매러다임: 조직인사·노사관계, 「청개구리 기업문화」, 「인간경영64환(역서)」, 「엑살런트 리더십(역서)」, 등
- 수상 경력: 한국인사조직학회 우수논문상(2006), 한국경영학회 우수논문상(2007)

사회에만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도 문화가 있다. 조직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신적 자산과 행동규범이 바로 그것이다. 어떤 회사에 가면 종업원들이 밝고 친절하고 또 일도 잘 한다. 가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다면 그것이 그 회사의 문화인 것이다. 훌륭한 기업이나 기관에는 조직원들이 전통적으로 기어온 문화가 있어 심지어는 종교적인 향취까지 풍긴다. 조직의 문화는 조직 업무의 부산물이 아니라 그 조직의 성과를 결정하고 경쟁력을 좌우하는 무형의 자원이다. 그럼 조직의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변화되는 것인가? 이 강좌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민한다.

제7강 | 한국인의 관계심리학: 리더를 위한 감정관리 노하우



**권수영**  
연세대학교 연한신학대학원 교수

- 버클리연한신학대학원 종교심리학 박사
- 연세대학교 상담·코칭지원센터 소장, (사)한국상담진흥협회 회장, (사)한국상담학회/ 부부·가족상담학회 회장, (사)사단법인 글로벌 디아스포라 다문화코칭네트워크 이사장
- KBS 「아침마당」 목요일장, MBC 「내 마음을 보여줘」, SBS CNBC 「인문학아고라」, TBS 「창의특강」, KBS 1라디오 「생방송오늘」 등 다수 방송 출연
- 저서: 「누구를 위한 종교인가 - 종교와 심리학의 만남」, 「프로이트와 종교」, 「한국인의 관계 심리학」, 「공감육아」, 「나쁜 감정은 나쁘지 않다」, 외 다수

어느 사회보다 인간관계를 중시하던 한국사회에 전에 없던 앵그리 국민성이 생긴걸까? 주변에는 화난 사람들로 넘쳐난다. 분노조절을 못하여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사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약자들에게 이유 없이 갑질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심지어 자녀를 학대하다 화끈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부모도 생겨났다. 도대체 한국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분노 감정은 왜 생기는지, 이 감정은 한국인들에게만 특별히 잘 생기는 감정인지가 궁금하다. 분노감정이 과연 폭력을 부르는 사악한 감정일까? 분노 심리를 통해 더 깊은 한국인의 관계심리의 진실을 만나본다. 특별히, 이제 한국 사회의 리더들에게 꼭 필요한 핵심역량인 감정관리 노하우를 소개한다.

제8강 | 우리 시대의 위험한 한국어: 언어 변화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박재연**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 연구분야: 한국어 문법론, 의미론, 화용론
- 저서: 「한국어 앞테 어미 연구」, 「한국어 문법 총론 1, II」 (공저)
- 대표논문: 「국어 앞테 범주의 확립과 어미의 의미 기술」 (1999), 「고유명 의미의 지시와 내포(2012)」, 「한국어 환유 표현의 체계적 분류 방법(2014)」, 「양태와 관습적 간접 화행의 환유적 연계(2015)」
- 수상: 一石國語學研究獎勵賞(2008)

예전보다 훨씬 빠르고 다채롭게 진행되는 현 시대의 언어 변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현대언어학의 선구자인 F. 소쉬르를 계승한 언어학의 전통에서는 어떤 언어 현상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처방적 태도를 비판하였고, 존재하는 언어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진정한 언어학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 등장한 신어(新語)나 이미 있던 말의 새로운 용법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에서도 새로운 말의 존재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금기로 다루어졌다. 언어학자들은 외래어나 비속어 범람 현상에 대해서도 가장 관대한 입장을 취해 왔다. 이 강의에서는 현 시대의 새로운 언어 현상들 중에는 단지 새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해롭기도 한 것이 있음을 지적하고 언어 변화를 바라보는 인문학적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9강 | 고전읽기 2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볼테르의 「관용론」



**김용현**  
아주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 프랑스 몽펠리에3대학교 문학박사
-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교 방문교수
- 아주대학교 언론사 주간교수, 한국불어불문학회 학술이사
- 연구분야: 프랑스 현대시, 프랑스어권 문화·문학
- 저서: 「Poésie & paysage(시와 풍경)」 (공저), 「L'Atelier des Cahiers」(공저), 「서유럽문화기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 논문: 「모니크 프루의 「몬트리올의 오로라에 나타난 색의 이미지(2014)」, 「보르 문화와 보르성-아르시 아메드 규방에서의 차」(2012) 등

볼테르(Voltaire)는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이며, 그의 저서 「관용론 Traité sur la tolérance」(1763)은 현대 프랑스 사회의 중요한 이념 중의 하나인 관용을 정초한 저작이다. 「관용론」은 1762년 프랑스의 남부 도시 툴루즈에서 일어난 장 칼라스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볼테르는 한 가족을 죽음과 몰락으로 이끈 이 비극적 불행이 종교적 광신주의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고발하면서 종교와 사상의 관용을 역설한다. 더불어 볼테르는 이 저서를 통해 불의에 저항하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지식인의 사회 참여 운동을 불러일으킨다. 오늘날 앙가주망이라는 불리는 프랑스의 정신적 전통이 된 그의 행동은 훗날 '나는 고발한다'라는 글을 통해 드레퓌스 사건의 부당함을 프랑스 전 사회에 알린 에밀 졸라의 투쟁으로 이어진다.

제10강 | 미술작품의 감정과 수집의 인문학



**박영택**  
경기대학교 예술학과 교수, 미술평론가

- 성균관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 박사과정 수료
- 뉴욕퀸스미술관 큐레이터 연구
- 현 키아프 운영위원, 한국미술품감정협회 이사, 조선일보 신춘문예 미술평론 심사위원, 아트페어평가위원, 전 금호미술관 큐레이터, 아시아프 전시 총감독, 2회 광주비엔날레 특별큐레이터 등
- 저서: 「예술가로 산다는 것」, 「수집미학」, 「애도하는 미술」, 「한국현대미술의 지형도」, 등

본 강의는 미술작품의 감정과 수집에 관한 안목과 실무적인 내용, 그리고 그런 행위가 지니고 있는 인문학적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미술작품은 하나의 뛰어난 조형적인 존재이자 지적, 정신적 가치와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유산이기도 하다. 그것의 조형적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키우는 방법, 작품 감상의 경험, 안목을 키우는 실제적인 방법을 비롯해 감정과 수집에서 있어 중요한 사항 등을 작품이미지와 함께 생각해볼 수 수업이다. 이를 통해 작품 감상, 수집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인문적 공부이고 행위인지를 깨닫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제11강 | 나폴레옹의 신화와 역사



**박구병**  
아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 미국 UCLA 사학과 박사
- 한국서양학회 편집위원장
- 연구분야 : 19-20세기 라틴아메리카, 서양근현대사
- 저서 : 『서양사 강좌』(공제), 『세계화 시대의 서양현대사』(공제), 『글로벌 냉전의 지역적 특성』(공제) 등
- 역서 : 『변화하는 라틴아메리카』, 『아메리카노』(공역) 등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생애는 어느 한 구석 빠진 곳 없이 전설이 되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파리의 앵발리드(Invalide)에 안치된 프랑스의 황제에 관한 기억은 국가의 영광을 드높인 구원자에서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억압한 압제자이자 파시즘의 선구자까지 여전히 극과 극을 오간다. 이 강의에서는 이 문제적 인물이 남긴 삶의 중요한 단면을 살펴보면서 그를 역사적 존재로 자리매김하고자 시도할 뿐 아니라 파란만장한 부침을 겪은 그에 대한 집단기억과 신화의 정치적 기능에 주목하고자 한다.

제12강 | 인간 욕망의 두 시스템, 접근과 회피 동기 그리고 소통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텍사스대학교 심리학 박사
- 아주대학교 입학사정센터장, 창의력연구센터장, 상담·R·자문교수, 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의료분쟁중재원 조정위원
- 전중앙심리부검센터장, 전한국지방법원 조정위원
- 연구분야 : 추론, 판단 및 의사결정 창의성
- 저서 : 『이름지말고 따르게 하라』, 『지혜의 심리학』
- 역서 : 『혁신의 도구』

우리는 모두 소통하고 싶고 설득의 능력을 원한다. 하지만 그것만큼 어려운 것 또한 없다. 왜일까? 욕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욕망에 의해 움직인다. 즉 소통과 설득의 궁극적 기저에는 나와 타인의 욕망이 존재한다. 하지만 20세기의 인간관련 학문은 이 욕망에 대해 지극히 피상적인 접근에 머물러 지혜로운 소통과 설득을 위한 실천과의 연결고리를 풀어내지 못했다. 인간에게는 접근과 회피 두 가지의 근본적 욕망이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과 환경, 그리고 시간 역시 접근과 회피의 욕망 중 하나를 상황에 맞도록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점이다. 본 강의에서는 그 호환성의 실행 방향을 검토해 보면서 이를 통해 소통과 설득을 위한 지혜를 실마리를 찾아본다.

제13강 | 한민족의 문화코드! 아리랑의 생명력!



**김명운**  
한양대학교 국악과 교수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고전문학전공)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 제 57,58회 한국민속예술제추진위원장, 국악방송 「김명운의 국악산책」 진행
- 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전 한국국악학회 회장, 전 한국음악협회 감사
- 연구분야 : 한국음악사(고악보, 궁중연향, 가곡연향), 한국음악이론(악조론, 향토민요, 아리랑)
- 저서 : 『국악개론』, 『가곡 연향형식의 역사적 전개』, 『정재 무도술기』, 『경기민요』, 『피리장악 및 대취타』, 『가곡』 등
- 수상 : 관재국악상(2006), 난계국악대상(2009)

한국을 대표하는 민요이자 한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노래인 <아리랑>은 단순한 민요의 차원을 넘어, 한국이라는 국가와 한민족을 상징하는 제2의 국가(國歌)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해외 한민족 동포들에게는 강한 조국애를 불러일으키고, 민족 동질성을 확인하는 문화코드가기도 하다. 한민족이라면 누구나 친숙하게 알고 있어야 할 아리랑의 역사적 변천과, 그 존재양상 및 남·북한과 해외 동포사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있는 아리랑의 모든 것을 찾아 탐색해보고, 오늘날과 미래 한국 문화에서 <아리랑>이 지니는 상징성과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제1강 |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주철한**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 전 OBS 경인TV 대표이사 사장
- 전 JTBC 제작본부장, 편성본부장
- 전 이화여자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 연출 프로그램 : MBC TV <퀴즈 아카데미>, <우정의 무대>, <일요일 일요일 밤에> 등
- 저서 : 『오블라디 오블라디』, 『더 좋은 날들은 지금부터다』, 『침춘』, 『PD마인드로 성공인생을 연출하라』 등

소설가 한창훈의 연작소설 '행복이라는 말이 없는 나라'는 가상의 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그 섬의 법은 단 한 줄이다. "어느 누구도 다른 어느 누구보다 높지 않다" 행복하지 않아서 행복이라는 말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빈부귀천이 없어서 행복이라는 말조차 아예 없다는 의미다. 서울문화재단은 이른바 '더다이즘'을 추구한다. 예술로 '더' 새롭고 문화로 '다' 행복하게 살자는 의미다. 행복은 3간의 하모니다. 여기서 3간은 시간, 공간, 인간을 말한다. 간(間)은 틈이라는 뜻인데 서로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연결하는 게 행복의 조건이다. 외로운 꽃이 꽃밭이 되려면 나비와 꿀벌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들이 매개가 되어야 꽃들은 사랑을 나눌 수 있다. 예술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



제2강 | 당신은 말하는 만큼 존재한다 – 생각의 구조와 언어의 혁신



**박만규**  
아주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문학박사
- 아주대학교 디지털유머미디어센터장, 불어권협력센터장
- 전국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협의회 회장, 전 파리7대학 및 몬트리올대학 초빙교수
- 수상·상훈 : 프랑스정부 학술공로훈장(Ordre des Palmes Académiques) 기사(Chevalier)장 수훈
- 연구 분야 : 언어과학, 언어교육학, 전산언어학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가?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인가? 이 같은 물음에 대해 현대 인지과학의 혁명적 연구 성과는 사고와 언어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을 철저하게 무너뜨린다. 이 강의에서 우리는 사고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특정한 관점에 의해 형성되는 사고의 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언어에 의해 절대적으로 좌우된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상대에게 적절한 사고의 틀을 형성하는 것만이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본 강의에서는 언어 사용에 관한 다양한 구체적 예들을 통해 이를 알아본다.

제3강 | 격변기에 반추하는 한반도의 국제관계



**한명기**  
명지대학교 사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문학박사
- 서울대 규장각 특별연구원, 개간 「역사비평」 편집위원
- 전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위원, 전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
- 연구분야 : 조선시대 대외관계사
- 저서 : 「역사명실 병자호란」,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광해군」,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 수상 경력 : 제25회 월봉저작상(2000), 제54회 한국출판문화상(2014)

작금 한반도 주변의 동아시아 정세는 격동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이라는 常數 속에 트럼프의 당선, 일본의 보통국가화, 北核 능력의 증대 등 중대한 變數가 맞물리면서 동아시아의 미래는 짙은 불확실성의 안개에 휩싸여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제대로 된 정치적 리더십의 복원과 안팎의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의 확보가 절실하다. 본 강의는 國際關係 변동의 시각으로 지난 600년 동안의 우리 역사를 살피으로써 오늘 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와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4강 | 하루 1% – 변화와 혁신의 심리학



**이민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임상심리학 박사
- 전 아주심리상담센터 소장,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전 공군 임상심리장교
- 저서 : 「풀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1%만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네 꿈과 행복은 10대에 결정된다」, 「지금 시작해도 괜찮아」
- 수상 : 교보문고 30주년 「대한민국이 읽은 대작가 25인」(2011), 아주대학교 김의우수교수(Best Teacher)(2001)

10년 후 미래를 바꾸는 것은 하루 1%로 충분하다. 하루 1%만 투자하면 개인이든 조직이든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하루는 24시간×60분=1440분이고, 그 1%는 15분에 불과하다. 하루 15분만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라. 10년 후로 미리 가라. 그리고 10년 후를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보라. 변화의 지렛대를 활용해 즉시 실천하라. 하루 1%만 잡아주면 나머지 99%는 저절로 달라진다. 10년 후를 위해 매일 1%만 투자하면 1년이 되기 전에 이전과 전혀 다른 자신을 만나게 되고, 10년도 되기 전에 판 세상이 열린다.

제5강 | 인공지능시대, 일의 미래



**구본권**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 한양대학교 언론학 박사
- 한겨레 신문 정보기술 전문 저널리스트
- 저서 : 「로봇 시대 인간의 일」, 「나에 관한 기억을 지우라」, 「당신을 공유하시겠습니까?」, 「잊혀질 권리」, 「페이스북을 떠나 진짜 세상을 만나다」, 「포스트휴먼시대의 휴먼(공제)」 등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새로이 지식의 본질과 인간의 고유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사람 대부분의 영역을 똑똑한 기계가 대체하게 되는 미래를 대비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가르쳐야 할까. 기계가 사람을 닮아간다는 것은 기계와 사람의 다른 점을 묻는다. 기계가 인식기능을 갖추게 되면서 지식과 정보의 본질에 대한 관점도 달라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거의 모든 것을 컴퓨터와 알고리즘이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강력하고 편리한 세상에 대한 기대를 제공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기회와 위기의 모습을 함께 지닌다. 지능정보 사회를 맞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

제6강 | 고전읽기 1 괴테 「젊은 베르터의 슬픔」



**오순희**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 독일 뒤셀도르프 대학교 대학원 박사(독문학)
- 전 한국카프카학회 회장
- 연구분야 : 괴테 문학, 고전주의, 카프카 문학
- 역서 : 「천하학」, 「에로스의 탄생」 등
- 논문 : 「예술과 권력에 관한 근대 서구의 담론 연구: 괴테와 부르크하르트를 중심으로」 등

「젊은 베르터의 슬픔」은 무명의 청년 작가 괴테를 일약 세계적인 작가로 비약하게 만든 소설이다. 유럽 전역에 걸쳐 베스트셀러였으며, 「베르테르 효과」라는 개념이 생겨난 원인이기도 하다. 본 강의는 이 소설의 어떤 점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괴테의 삶과 그의 시대를 살펴 보면서 작품과 시대사와의 연관성을 찾아본다. 그리고 주인공 베르터와 로테의 특징들을 분석하면서 이들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당대 독자들의 감성을 흔들었는지 추론해본다. 끝으로 이 소설이 우리 시대의 독자들에게 어떤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는지 토론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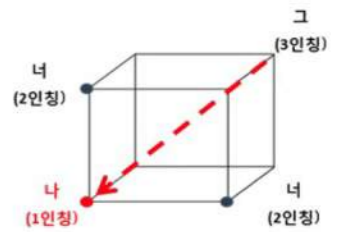
제7강 | 깊은 변화의 원동력! 내 인생의 '관찰자(Observer)'되기



**이성엽**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고려대학교 교육학 박사
- 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
- 한중협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사)한국인력개발학회 상임이사, (사)한국 인사관리학회 부회장, (사)한국상담학회 NLP 상담학회장, 경기도인재개발원 자문위원
- 저서 : 「어웨이크너」, 「낯선 길에 서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 「성인 경험학습의 이해」, 「스무 살 어릴 때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TIME POWER 잠들어 있는 시간을 깨워라」, 「일자리와 교육리더십」 등

리더의 긍정적인 영향력(Influence) 확대의 핵심은 자신을 객관화 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 자기 객관화는 Self Awareness의 기본으로서 자신을 제 3자 입장에서 관조하고 생각 기본 행동을 검토해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입체의 연속된 공간 속에서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다. 언제나 나를 타자화 할 수 있는 힘은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한 변화와 성장의 Life Event가 될 수 있다. 성인계속교육학분야의 중요한 담론 중 하나인 '관찰자'의 힘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이를 삶에서 적용하는 탁월성의 방법을 직접 경험해 본다.





제8강 | 오케스트라처럼 경영하라



**서희태**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 러시아 그네신음악원 성악, 오케스트라 지휘과 박사과정 수료
- 국립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명예교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행복나눔N캠페인 홍보대사,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홍보대사
- (전) MBC 미니시리즈 '베토벤 바이러스' 예술감독, KMA(한국능률협회) 클래식아트경영 최고경영자과정 리딩멘토
- 저서 : 『서희태의 더 클래식』, 『서희태의 클래식토크 '베토벤 바이러스'』, 『클래식 경영 콘서트』, 『오케스트라처럼 경영하라』 등

2014년 3월에 출판한 저서 [오케스트라처럼 경영하라]를 중심으로 오케스트라 소통의 비밀을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강의로, 변화와 혁신을 위해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조직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나 서로 소통하는 특별한 방향을 경역적인 관점에서 제시한다.

제9강 |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과 우리 시대의 행복론



**정재식**  
아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 뉴욕주립대 (버팔로) 영문학 박사
- NLP 마스터프랙티셔너
- 연구분야 : 영미문학과 문화, 미학, 정신분석학, 마음 치유와 코칭
- 저서 : 『들리츠와 그 적들』(공저)

톨스토이, 간디부터 법정 스님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많은 이들에게 널리 애독되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은 우리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고전 중의 고전이다. 이 책에서 소로우는 현실 도피적인 이상주의적 행복론이 아니라 냉엄한 현실 속에서도 본질적인 것에 충실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리듬으로 몸과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며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선사한다. 인문학 분야 뿐만 아니라 영미권 자기계발 및 경영 관련 베스트셀러 등에서도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월든」의 깊이와 실용성을 맛보면서, 인공지능 등 급격히 과학 기술 발달과 경제 구조 변화로 인해 불확정성 시대로 요약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행복론과 삶의 기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한다.

제10강 | 교전읽기 2 「훈민정음」



**이상신**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문학박사
- 연구 분야 : 국어학(음운론, 발언학)
- 수상 경력 : 한국방언학 학술장려상(한국방언학회)

이 강의의 목적은 「훈민정음」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여 세종과 「훈민정음」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우리 글 한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한글' 혹은 '훈민정음'이라는 명칭, 한글의 제자 원리, 한글 창제 동기 등을 이해하고 나아가 한글이 우수한 이유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11강 | 영화로 보는 창조혁신



**이승재**  
영화평론가

- 서울대학교 미학과 졸업
- 동아일보 교육법인 ㈜동아이지에듀 상무이사, 전경련 '자유와창의교육원' 교수,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PRO) 교수
- 전 대중영화제 본심 심사위원
- SEFJ CEO (이승재의 상상극장) 강의, 동아일보 영화칼럼 <이승재 기자의 무비홀릭> 연재
- 저서 : 『땀땀을 든 CEO』, 『영화관에서 글쓰기』 등

1000만 관객 신화를 이룬 놀라운 한국영화들과 위기를 딛고 새로운 영화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할리우드 최고 감독들, 최고 자리에 오른 톱 배우들의 성공과 혁신 사례를 통해 변화를 주도하고 창조와 혁신의 정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새로운 지평을 여는 비즈니스의 실마리를 얻어본다. 1. "창의는 소통이다" 2. "창의혁신은 업(業)의 본질을 파고드는 데서 나온다" 3. "진정한 혁신가는 변화를 즐기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다" 4. 창조와 혁신의 본질은 바로 '용기'

제12강 | 역사를 통해 어떻게 변화와 혁신을 말 할 것인가: 뻘한 한국역사를 다른 식으로 보기



**김종식**  
아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 일본 동경대학교 일본사학과 박사
- 전 일본학회 산하 일본역사문화학회 회장
- 연구분야 : 일본 근현대사
- 저서 : 『1920년대 일본의 정당정치-성립과 쇠퇴의 논리』, 『근대일본 청년상의 구축』, 『일본주의의 어제와 오늘』(공저)

1910년부터 1945년까지는 한국 근대사에서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의 시기이다. 한국에서 식민지시기 역사는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으로만 이해되고 있다. 그 반대편에서 있는 일본의 지배역사는 무시되었다. 이 시기는 지배받고 있던 한국인의 저항과 지배하는 일본의 양쪽을 통일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역사를 한쪽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민족 자존감을 높일 수는 있지만, 현실감 있게 역사를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든다. 식민지시기의 반쪽 역사를 채우는 것은 뻘한 한국역사가 아닌 현대 한국을 이해하는 기초이며,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다.

제13강 | 호모루덴스의 귀환 - '공부하는 즐거움'에서 답을 찾다



**최은실**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재단법인 지역사회교육연구원 원장, 대한민국평생교육진흥재단 대표, 유네스코평생교육국제기구(UIL) 집행이사
- 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전 대통령직속 교육혁신위원회 위원, 전 교육부 정책평가위원회 위원장, 전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이사장 겸 회장, 전 한국평생교육학회 회장
- 저서 :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경영학』,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청소년교육론』

물이 바뀌어 버리는 새로운 세상, 인간의 넥스트 페이지 삶과 학습은 공부하는 즐거움을 다시 찾는, 일과 삶의 본질에서 배우는 즐거움과 일하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신인류의 모습을 '호모 루덴스의 귀환'으로 조명해 본다. 초연결(hyper-connectivism)과 융합(conversion), 불확실성으로 대변되는 미래 사회를 살아 갈 '사람'과 그들의 예측하기 어려운 '뉴 라이프-삶' 그리고 그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줄 '답인' '즐거움' '공부'를 만나본다. 물질주의와 일의 벨트, 돈의 굴레에 빠진 일상에서 '호모루덴스가 사라졌다. 그들을 대신해서 나는 만든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단순 작업자이자 메이커로 전락한 '호모 파베르' 시대가 오래도록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미래 세상은 그 속에서 존재의 의미와 일하는 즐거움, 공부하는 즐거움을 다시 찾는 '호모루덴스의 귀환'을 예고한다. 더 이상 일과 삶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일상의 학습을 매일 매일 축제처럼 즐기며 '즐거움' 일과 공부에서 삶의 해답을 찾는 '호모 루덴스의 생생한 귀환'을 만나본다. 인공지능로봇의 시대에도 역시나 답은 기계가 아닌 '사람' 바로 그들이었다. 와우 '인간 만세!!!'



## 혜택 및 입학 요강

### 입학요강

교육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기간 : 2018년 3월 19일(월) ~ 2018년 12월 17일(월)</li> <li>  봄 학기   2018년 3월 19일(월) ~ 6월 18일(월)</li> <li>  가을학기   2018년 9월 10일(월) ~ 12월 17일(월)</li> <li>강의장소: 아주대학교 종합관 1003호</li> <li>강의일: 매주 월요일(매 학기별 13주 강의)</li> <li>강의시간: 18:30~20:30 (2시간)</li> </ul>
모집인원	30명
지원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기업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벤처 기업인</li> <li>행정, 입법, 사법부 등 정부 인사 및 책임자</li> <li>금융, 문화예술, 법조, 언론, 의료, 체육 등 전문직 종사자</li> <li>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인사, 전/현직 모두 지원 가능</li> </ul>
수강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액 : 3,000,000원(봄학기, 가을학기 각각)</li> <li>입금계좌 :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632-15-000986(예금주: 아주대 평생교육)</li> </ul>
원서교부 및 접수	2017년 12월 18일(월)~2018년 3월 16일(금)
제출서류	입학지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 명함판 사진(4x5size, 컬러사진) 1매
접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편접수 :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산학협력원 1층 109호</li> <li>방문접수 : 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팀(아주대학교 산학협력원 109호)</li> <li>인터넷접수 : 지원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원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whj8045@ajou.ac.kr) 발송</li> <li>※ 홈페이지(http://cll.ajou.ac.kr) 접속→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 입학원서 다운로드</li> </ul>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화 : 031-219-1565</li> <li>홈페이지 : http://cll.ajou.ac.kr / 팩스 : 031-219-1566</li> </ul>

### 특별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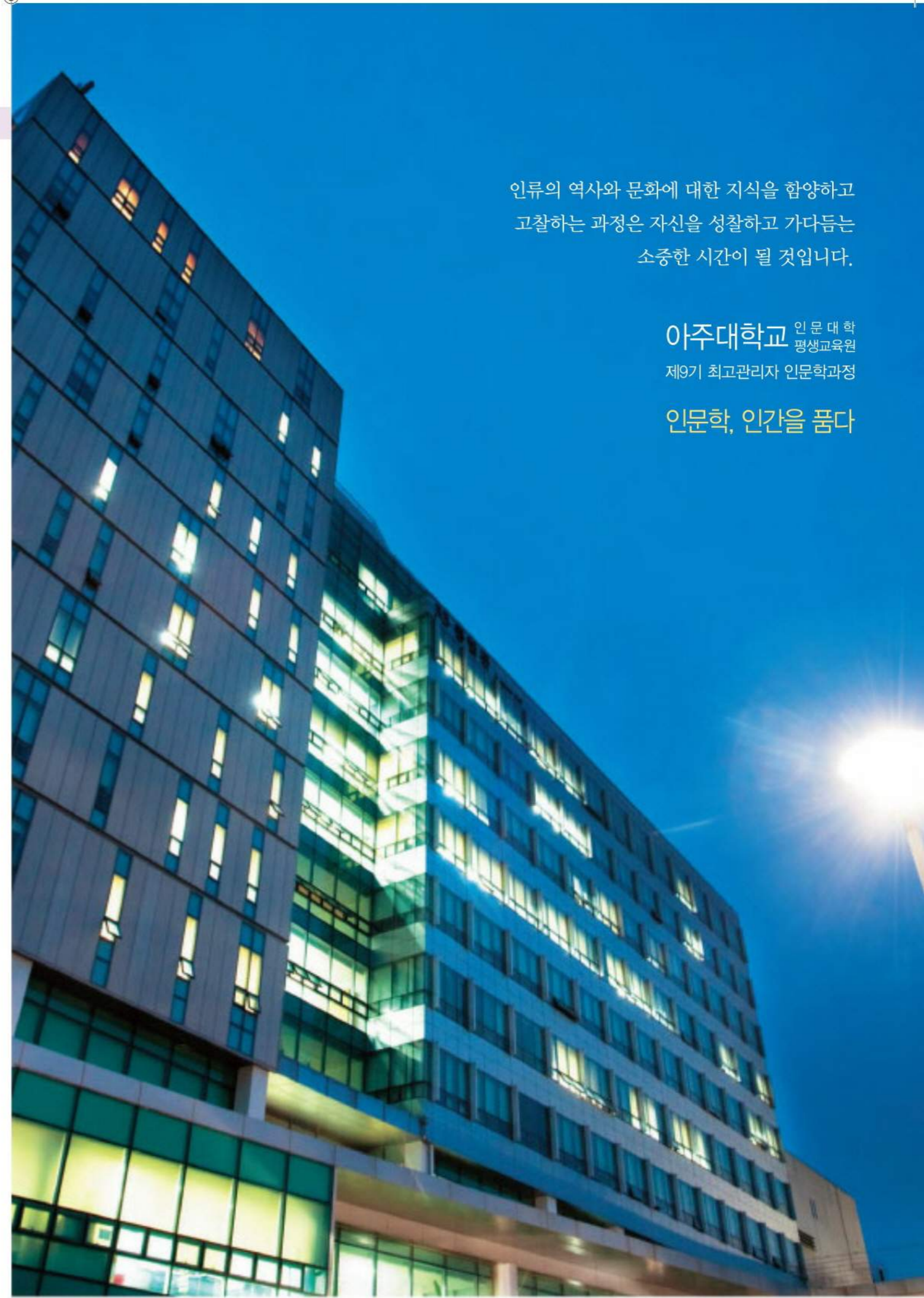
아주대학교의료원 진료비 감면	진찰료 : 20% 감면
	진료비 : 10% 감면
아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이용	본 과정에서 발급하는 학생증 소지 시, 아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이용 가능

인류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고찰하는 과정은 자신을 성찰하고 가다듬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주대학교** 인문대학  
평생교육원

제9기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

인문학, 인간을 품다







**아주대학교** | **인문대학** | **평생교육원**  
 AJOU UNIVERSITY | College of Humanities | Center for Lifelong Learning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산학협력원 1층 109호  
 T. 031-219-1565 F. 031-219-1566